

재정경제원은 내수증에
는 규제에 산기조를 유지
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국민복지향상, 교
육증진 및 농어촌개발 등
시급한 사업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최근 재정원이 정책 협의
의를 거쳐 확정한 '96년
도 재정운영 기본방향'
에 따르면 학년전 예산규모
모 하에서 가급적 많은 예

산을 정하고 주요사업부문에 적은 예산으로 성과를 거둘
다 높은 성과를 거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터 정부조직개편, 예산
도 개혁, 재정운영의 효
성제고 등 정부부개혁을
한 기본구성 검토에 착
한 뒤 부분시행에 들어
계획이다.

부 보 주 제 수 부 중 산 갈 수 위 를 를 기능과 조직의 정책입안
알부서 분리하고 정책집행기능을
민간이나 산하단체가 다
혹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과감히 그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갖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도로, 항
만, 철도, 공항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증대

가 요구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고속도로 통행세, 환면약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국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낙후지역의 보건 의료시설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업까지
완료한다.
이다.
전교부는 이를 위해 기획단계
연구기관과 반원을 중심으로 까지 설계에서 일절 계약
시공하고자 감리 유지부
수등 일련의 건설과정에
이프사이클에 대한 전문가
작업을 벌여 세부과
도출, 이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11일

농어촌개발 우선 투자 정책기능 團體에 移讓

96年度 재정
運營기본 方向

入札 담합 根絕

入札 담합

公正去來委 職

하는 이를바, '담당관련정부를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지 정부발주기관, 건설자 및 제조업체의 계약 담당자와 수주 담당임직원 대상으로 대대적인 관련 교육 훈련을 나서 했다.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인 관리
및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면허계 개편을
포함한 건설업법
개정사업에
나서는 한편
전설산업
업에 대한 중장기
향을 함께 수립·
장기적

효율적인 건설정책이 확장까지 파급되도록 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했다.

격적인 법령 및 제도개선
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은 재정경제원은 최근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고
따라 이와 관련된 적격
사요령 등 총 25건의 회
제구를 그간 드는 경

建設業法
기본법
서울관

8月末 까지

원가계산을 통해 예상 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시중노임이 감액되었거나 전액공사예정가격에 반영되어 됐다. 또 부대일절 및 일절 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이 되는 공사가 14개 종에서 22개 공종으로 대

를 및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에 들 규칙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재경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종전까지 시중노임을 15%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던 감액규정을 삭제, 시중노임을 예정가격에 모두 반영하도록 해 부실시공의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제주도 를 포함한 도서지역이나 오지에서 이뤄지는 공사 등의 경우 노임단가의 15

개국의
호주들
요 어 항
살 을 주 3
펴보게 될 이번 시찰
은 21세기의 문턱에
우리나라 어항개발을
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
에 대한 조사 연구
활려있는 퍼ектив한 어항

이항
観察
申 8 위

한국기호
한국기호
할 말까지
협회는 시
찰단 구성원
을 위해 예
비수요조사에 이어 8월
30일까지 어학관련 종목
원·시공·용역업체·수
협동 기타 어항에 관심
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正업자制裁 강화

협회는 오는 촌건설의 촉진과 품질적 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찰단을 파견하는 이번 시찰에서는 우리 나라와 여전히 비슷한 일본의 和歌山縣, 三重県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주의 시드니항에 대한 합세와 건설기술 관리상태 수산여전 및 현황을 조사하는 행정 기관 대체의 안내를 받아 체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어항건설 기술경쟁력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營業種目

代 (港灣	表 吳	理 海岸技術士)	事	催	錫	煥
常 (港灣	務 吳	理 海岸技術士)	事	俞	用	源
常 常	務 務	理 理	事	金	鍾	晚
技 (水	術 資	顧 源	問	張	宇	永
		術	士)	金	炳	滿

(株)世光綜合技術團

서울 特別市 麻浦區 東橋洞 179-44호. 電話 : 323-9962~5. 323-1667

수산업·어촌이 달라지고 있다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 1주년”에 살펴본 오늘

수산정책 추진 주요성과

지난 1년은 WTO 체제 출범 및 UN 해양 법협약 발효 등 국제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21세기를 향한 수산정책 개혁방안」과 「수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투자계획 마련 등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기에 배양하여 21세기 국민식량산업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었음

1. 「21세기를 향한 수산정책 개혁방안」 수립

국내적으로는 산업화에 따른 해양오염의 확산과 자원남획 등으로 어업 생산성이 약화되고 대외적으로는 '94. 11월 UN 해양 법 협약 발효와 '95. 1월 WTO 체제가 출범하는 등 어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여건변화에 등등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 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1세기를 향한 수산정책 개혁방안」을 수립('94. 6. 16)

- 수산정책의 방향 전환
 - 무제한 증산·이용하는 바다에서 보전·관리하는 바다로
 - 단순생산·판매인에서 전문경영의 주체인 어업인으로
 - 방치되고 낙후된 어촌에서 정주환경이 완비된 어촌으로
 - 앞으로 추진할 중점시책 설정
 - 무역·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
 - 어장환경보전과 어업질서 확립
 -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어촌종합개발

이를 토대로 2004년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21세기를 향한 수산정책 개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95. 3)

중·장기 수산정책의 청사진 제시

2. 획기적인 투융자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21세기에 대비한 수산진흥대책을 재원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까지 5조원의 투융자계획을 마련하였음

○ 농어촌구조개선 42조원 중 3조 5,559억 원 : 1조 137억 원 ('92~'94), 2조 5,422억 원 ('95~'98)

○ 농어촌특별세 15조원 중 1조 4,478억 원 : 300억 원 ('92~'94), 1조 4,178억 원 ('95~'98)

* 농어촌특별세 중 1조 4,178억 원은 '95~2004년간 투자

'95 수산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액·확보 ('94년 대비 47% 증) 하였음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제도 개혁방안」 마련

변화된 국내·외 어업환경과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수산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21세기를 향한 수산정책 개혁방안」과 「수산제도 개혁의 해」로 정하고 이를 추진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95. 2. 15) 하였음

'95. 2월부터 수산제도 개혁 특별반(민간자문위원회 및 실무 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어촌 현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

4. 어업인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수산사업 지원방식 개편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을 제정 ('94. 12) 하여 어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사업지원 체제로 전

환하였음

- 어업인 자율 추진사업은 연중 신청을 받아 지원
- 어업인들이 신청한 사업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공개적인 심의를 거쳐 선정
- 5.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수산행정 조직 개편('95. 4. 12)

국제통상, 수산물 유통 및 어촌진흥을 위한 수산청 본청 조직 보강

- 수산진흥원의 활성화 및 해역별 연구소의 기능 강화

수산업·어촌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산정책의 추진과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득이 증가하고 어업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어촌이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1. 수산물 생산·수출이 늘어나고 어가소득도 증가

수산물 생산

- 연안 오염의 확산, 원양어장의 축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르는 어업에 힘입어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 세계 수산물 생산 10위, 국내 자급률 112%, 국민 동물성단백질 공급량의 45%를 공급하는 국민식량산업으로 육성

수산물 수출

- 미국 등 주요 수입국의 수입규제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수산물 수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세계 8위의 수산물 수출국이며, 1차산업부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연간 10억불의 수산물 무역수지 흑자 시현

어가소득

- 어가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연간

○ 양식어장 개발 및 정비·정리로 생산성 복원

- '95년까지 양식어장 111천ha 개발 ('95년부터 어촌계 및 수협사업은 농특세로 40% 보조지원)

- '94년부터 개발된 양식어장 중 생산성이 떨어지는 양식어장

정비·정리('94년 200ha 실시, 2004년까지 6,000ha 실시)

3.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어업 질서가 정착

'94년부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원수준에 맞게 과다한 어선세력 감축 추진중

- '94년 972톤 감축, '95년 2,064톤 감축 중, 2004년까지 130천톤 감축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계도와 어업인의 자율적 불법어업 근절운동 전개로 어업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음

4. 수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어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왔던 연근해 수산물에 대한 산지수협 위원장 강제상장 제도를 자유판매제도로 전환

-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97년 전면 실시

수산물의 물류비용 절감과 아울러,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규모 양육함에 수산물 종합처리장 시설중

- 감천항, 다대포항 등 2개소 ('95~2004 간 9,366억원)

품질인증제 실시로 소비자 인식 및 어업 인소득 제고

- ('94) 14개 품목 → ('98까지) 23개 품목 지정 추진

원산지표시제 실시로 부정유통 예방

5. 21세기에 대비한 수산 전문인력을 육성

- 어촌 현대화 시범사업 2개지역 병행추진 ('95~'96 : 전남 흑산도, 경남 거제도)

- 어촌관광개발과 어민복지회관을 연계 확충

○ 투자를 확대하여 2004년까지 어촌개발 완료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농특세 재원을 집중 투자

- 완공위주 집중 투자로 어항 조기완공

- 완공여향 : ('94까지) 180개항 → (2004 까지) 408개항

- 투자계획 : ('94까지) 6,933억원 → ('95~2004) 1조 5,022억원

○ 어항기능 활성화를 위한 유통·가공시설 등 어항기능시설 확충

7.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현장애로기술을 개발·보급

양식어업의 생산증대를 위해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보급

유전공학 연구결과 산업화 촉진

- 넘치의 전암컷 생산기술 개발로 생산증대

새로운 어구어법 및 각종 기술개발 보급

'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로 어촌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을 개발 보급

- ('95) 40억원 → ('96~2004) 360억원 지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95) 342억원 → ('96~2004) 4,927억원

8.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현재까지 어망, 부자, 집어등, 자동조상기 등 15개 품목

○ 앞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정책자금 대출제도 개선

- 신용대출 확대

○ 어업인 보증한도 상향 조정

어업용 기자재 반값 공급

- 지원대상

- 어선용 : 무전기, 로란, 구명장비, 양망기 등 12개 장비

- 양식용 : 양어용 수차, 양수기, 보일러 등 7종

- 지원기준

-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 : 100만원 지원

-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것 : 구입비의 50% 지원

- '94 어업인부담 경감액 : 43억 8,200만 원

농어촌학생 대학 특례입학제 실시 및 학자금 융자 확대

- 읍·면에 거주하고 읍·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으로 대입 총정원의 2%, 학과별 정원의 10%를 특별전형 입학('96 대입시 적용)

○ 2004년까지 농특세(2,100억원)를 재원으로 매년 200억원씩 학자금 지원

-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학기당 100만원씩 무이자 융자

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해 '95. 7.부터 실시

○ 가입기간, 대상 및 절차

- 기간 : '95. 7. 1~2004(10년)

- 대상 : 18~65세 미만

- 가입 절차 : 어업인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 ⇒ 징수고지서 발부 ⇒ 은행,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

○ 어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에 해당하는 2,200원을 농특세 재원으로 매월 정부가 지원

「21세기를 향한 수산정책 개혁방안」 수립

바다정화와 기르는 어업의 육성기반 확립

1.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수산물 생산·수출이 늘어나고 어가소득도 증가

수산물 생산

- 연안 오염의 확산, 원양어장의 축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르는 어업에 힘입어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 세계 수산물 생산 10위, 국내 자급률 112%, 국민 동물성단백질 공급량의 45%를 공급하는 국민식량산업으로 육성

수산물 수출

- 미국 등 주요 수입국의 수입규제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수산물 수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세계 8위의 수산물 수출국이며, 1차산업부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연간 10억불의 수산물 무역수지 흑자 시현

어가소득

- 어가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연간

2.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수산전문인력 육성

수산기술전문학교 설립 추진중

- 수학년한 2년, 어로·양식 2개학과 160명 ('97년 개교 목표)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업인 양성 확대와 자금지원 강화

- 어업인후계자 : ('94까지) 7,232명 → ('98까지) 10,978명

○ 전업 어업인 : ('94까지) 300가구 → ('98까지) 1,286가구

- 선도 어업인 : ('95~'98) 26가구

○ 지원액: 후계자 15~30백만원, 전업어업인 50백만원

자영 수산고등학교 지원

- 자영수산과 학생 식비 일부 보조 ('95년 107백만원)

○ 졸업후 어업인후계자로 우선 선정, 지원

1